

# 太陰調胃湯의 基源, 變遷過程 및 構成原理

정용재 · 고병희 · 이의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Abstract

### The Origin, Change of the time and Constructive principle of Taeumjowitang(太陰調胃湯)

Jeong Yong-Jae, Koh Byung-Hee, Lee Eui-Ju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

#### 1. Objects

This paper was written in order to understand of Taeumjowitang(太陰調胃湯).

#### 2. Methods

We analysis prescription's combination of Taeumin's exterior diseases through pathology and new prescription in DongyiSuseBowonSasangChoBonKywun(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DongyiSuseBowon GabOBon(東醫壽世保元 甲午本), DongyiSuseBowon ShinChukBon(東醫壽世保元 辛丑本).

####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The origin of Taeumjowitang(太陰調胃湯) is BoPyeSaengMacTang(補肺生脈湯) which is combination of SaengMacSan(生脈散) and SanYakHwaWiJun(山藥和胃煎).
- 2) BoPyeSaengMacTang(補肺生脈湯) was changed to GilGyungSaengMacSan(桔梗生脈散) in DongyiSuseBowon GabOBon(東醫壽世保元 甲午本). GilGyungSaengMacSan(桔梗生脈散) was changed to HanDaYulSoTang(寒多熱少湯) and Taeumjowitang(太陰調胃湯) in DongyiSuseBowon ShinChukBon(東醫壽世保元 辛丑本).
- 3) Taeumjowitang(太陰調胃湯) is combination of BoPyeWonTang(補肺元湯) which help Exhale Dispersing Qi of Lung, and adlay(薏苡仁), dry nut(乾栗) and radish seed(蘿菔子) which help Stomach Qi, calamus(石菖蒲) which regular Qi, ephedra(麻黃) which is exhale exterior cold Qi.

**Key Words:** Taeumjowitang, HanDaYulSoTang, GilGyungSaengMacSan, BoPyeSaengMacTang

## I. 緒論

東武는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太陰人의 病證藥理를 張仲景이 대략 그림자만 언였고,

宋元明 의가들이 절반정도 밝혀놓았다고 하여 少陰人, 少陽人의 病證藥理와 다름을 말하였다. 즉, 水穀之氣 病證은 기존의학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氣液之氣 病證은 기존의학에는 없는 생소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太陰人의 처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지금까지 시행된 태음인 처방 연구로는 배<sup>4</sup>, 김<sup>5</sup>, 한<sup>6</sup> 등의 연구가 있다.

• 접수일 2009년 06월 24일; 심사일 2009년 07월 05일;  
승인일 2009년 08월 03일  
• 교신저자 : 이의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82-2-958-9230 Fax: +82-2-958-9234  
E-mail : sasangin@khmc.or.kr

동무의 처방에 대한 기술은 저술시기 순으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sup>1)</sup>(이하 『草本卷』), 『東醫壽世保元·甲午本』<sup>2)</sup>(이하 『甲午本』), 『東醫壽世保元·辛丑本』<sup>3)</sup>(이하 『辛丑本』)이 있다.

한<sup>6)</sup>은 각각 저술의 처방구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草本卷』의 太陰人의 藥方은 기존의 처방과 유사하지만 太陰人藥의 通外하는 원칙에 따라 약물구성이 되어 있다. 『甲午本』에서는 經驗藥方과 新定方을 따로 언급하여 病證과 藥理를 결합하고 있지만 그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辛丑本』에서는 『甲午本』의 表裏之表裏病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면서 새로운 表裏病證이 확립되고, 藥理 또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저자는 『草本卷』, 『甲午本』, 『辛丑本』의 처방을 비교분석한 결과 太陰調胃湯의 基源, 變遷過程 및 構成原理에 대한 조그만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太陰調胃湯의 개요

太陰調胃湯은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胃脘寒證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에 사용하였다.

太陰人 素有 胃脘寒證(素有 怔忡 無汗 氣短 結咳)이 있는 사람의 癩病<sup>1)</sup>, 表病之重者(表寒證 泄瀉 - 加 樗根白皮)<sup>2)</sup>, 表病之太重證(體熱腹滿 自利者 寒勝則 表證而太重證也 - 加 升麻 黃芩)<sup>3)</sup>, 表病之久者(食後痞滿, 腰脚無力病)<sup>4)</sup>,

- 1) 『辛丑本』 12-10 嘗治 太陰人 胃脘寒證 癩病 有一太陰人 素有怔忡 無汗 氣短 結咳矣 忽焉又添出一證 泄瀉 數十日不止 卽表病之重者也 用太陰調胃湯 加樗根皮一錢 日再服十日 泄瀉 方止 連用三十日 每日流汗滿面 素證亦減 而忽其家五六人 一時癩疫 此人 緣於救病 數日不服藥矣 此人 又染癩病癩證 粥食無味 全不入口 仍以太陰調胃湯 加升麻 黃芩 各一錢 連用十日 汗流滿面 疫氣少減 而有二日大便不通之證 仍用葛根承氣湯 五日 而五日內 粥食大倍 疫氣大減而病解 又用太陰調胃湯 加升麻 黃芩 四十日調理 疫氣既減 素病亦完
- 2) 『辛丑本』 13-30 太陰人證 有泄瀉病 表寒證泄瀉 當用太陰調胃湯 表熱證泄瀉 當用葛根蘿菔子湯.

咳嗽病<sup>5)</sup>에 사용하였다.

太陰人은 평소 肺, 胃脘의 呼散之氣가 쇠약한데 寒邪 등이 침입하여, 呼散之氣가 더욱 損傷을 입게 되면 상기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2. 太陰調胃湯의 基源 및 變遷過程

太陰調胃湯의 기원과 변천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辛丑本』 太陰調胃湯이 사용된 病證을 중심으로 각 해당 병증에 사용된 『草本卷』, 『甲午本』, 『辛丑本』의 사용 處方을 찾아보고 그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 (1) 癩病에 사용된 處方

癩病은 『辛丑本』에서는 胃脘寒證 癩病과 肝熱熱證 癩病으로 나누어지지만 『草本卷』과 『甲午本』에서는 그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① 草本卷

寧神承陰煎<sup>6)</sup>, 皂角黃芩大黃湯<sup>7)</sup>, 天門冬潤肺湯<sup>8)</sup>

#### ② 甲午本

- 目疹鼻乾 憎寒壯熱 燥澀者
- 葛根解肌湯<sup>9)</sup>, 天門冬潤肺湯
- 頭面項頰赤腫者
- 皂角大黃湯<sup>10)</sup>
- 體熱腹滿自利者
- 桔梗生脈散<sup>11)</sup>

- 3) 『辛丑本』 13-12 論曰 右諸證(癩病) 增寒壯熱燥澀者 當用皂角大黃湯 葛根承氣湯 頭面項頰赤腫者 當用皂角大黃湯 葛根承氣湯 體熱腹滿自利者 熱勝則裏證也 當用葛根解肌湯 寒勝則表證而太重證也 當用太陰調胃湯 加升麻 黃芩.
- 4) 『辛丑本』 13-29 太陰人證 有食後痞滿 腿脚無力病 宜用拱辰黑元丹 鹿茸大補湯 太陰調胃湯 調胃升清湯.
- 5) 『辛丑本』 13-31 太陰人證 有咳嗽病 宜用太陰調胃湯 鹿茸大補湯 拱辰黑元丹.
- 6) 桔梗 二錢 麥門冬 五味子 山藥 遠志 元肉 黃芩 杏仁 各一錢 白果 五分
- 7) 大黃 三錢 元芩 二錢 皂角 一錢
- 8) 天門冬 三錢 黃芩 二錢 麥門冬 酸棗仁 升麻 葛根 桔梗 杏仁 五味子 大黃 各一錢
- 9) 葛根 三錢 升麻 二錢 桔梗 黃芩 杏仁 酸棗仁 白芷 大黃 各一錢
- 10) 大黃 四錢 黃芩 麻黃 升麻 桔梗 猪牙皂角 各一錢
- 11) 麥門冬 三錢 山藥 桔梗 黃芩 黃粟 五味子 各二錢 白果 三枚

③ 辛丑本

憎寒壯熱燥澀

- 皂角大黃湯, 葛根承氣湯

頭面項頰赤腫者

- 皂角大黃湯, 葛根承氣湯

體熱腹滿自利者

熱勝(裏證) - 葛根解肌湯

寒勝(表證) - 太陰調胃湯 + 升麻 黃芩(表證 太重證)

이상에서 살펴보면 太陰調胃湯의 病證은 『甲午本』 桔梗生脈散 病證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太陰調胃湯은 『甲午本』 桔梗生脈散에서 변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泄瀉에 사용된 處方

① 草本卷

桔樗湯<sup>12)</sup>(治痢疾) 黃栗小白皮湯<sup>13)</sup>(治痢疾)

② 甲午本

有腹痛自利病 - 桔梗生脈散 黃栗樗根皮湯<sup>14)</sup>.

③ 辛丑本

表寒證泄瀉 當用太陰調胃湯 表熱證泄瀉 當用葛根蘿菀子湯

이상에서 살펴보면 太陰調胃湯의 病證이 『甲午本』의 桔梗生脈散 病證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太陰調胃湯은 桔梗生脈散에서 변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食後痞滿 腿脚無力에 사용된 處方

① 草本卷

石菖蒲酒(治痞滿沈滯 日服一二盃 或三四盃)

② 甲午本

有食滯痞滿 腿脚無力病(太重證) - 桔梗生脈散 黃栗樗根皮湯.

③ 辛丑本

有食後痞滿 腿脚無力病 宜用拱辰黑元丹 鹿茸大補湯 太陰調胃湯 調胃升清湯

이상에서 살펴보면 太陰調胃湯이 위의 病證에서와 마찬가지로 『甲午本』의 桔梗生脈散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桔梗生脈散의 基源 및 變遷過程

(1) 桔梗生脈散의 基源

桔梗生脈散의 기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甲午本』의 桔梗生脈散의 처방구성과 가장 가깝기 원처방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草本卷』의 補肺生脈湯<sup>15)</sup>이다.

桔梗生脈散은 補肺生脈湯의 구성을 2배로 증량하고 麥門冬을 3돈으로 만들고 乾栗을 黃栗로 대체하고 薏苡仁을 제거하고 白果 3매를 가한 것이다.

또한 補肺生脈湯은 『草本卷』 生脈散<sup>16)</sup>에 山藥和胃煎<sup>17)</sup>을 合方한 다음 黃栗을 乾栗로 바꾸고 黃芩을 더한 처방이다.

따라서 生脈散 + 山藥和胃煎 ⇒ 補肺生脈湯 ⇒ 桔梗生脈散으로 변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Table 1 과 같다.

Table 1. 桔梗生脈散의 基源 및 變遷過程

生脈散	山藥和胃煎	補肺生脈湯	⇒	桔梗生脈散
		黃芩 1		黃芩 2
麥門冬 3		麥門冬 1		麥門冬 3
桔梗 1		桔梗 1		桔梗 2
五味子 2		五味子 1		五味子 2
	薏苡仁 3	薏苡仁 1		
	黃栗 3	乾栗 1		黃栗 2
	山藥 3	山藥 1		山藥 2
				白果 3매

12) 樗白皮 五錢 桔梗 三錢 爲末糊丸

13) 黃栗 一兩 桔梗 三錢 小白皮 一錢

14) 黃栗 一兩 桔梗 三錢 五味子 樗根白皮 各一錢 : 草本卷 桔樗湯(甲午本 桔梗樗根皮湯)에 草本卷 黃栗 五味子膏을 合方한 것이다.

15) 麥門冬 山藥 桔梗 五味子 黃芩 薏米 乾栗 各一錢

16) 麥門冬 三錢 五味子 二錢 桔梗 一錢

17) 山藥 薏米 黃栗 各三錢 - 治胃氣不和 飲食無味

따라서 桔梗生脈散은 氣力을 올려주는 生脈散에 胃氣不和 飲食無味를 다스리는 山藥和胃煎이 합쳐지고 폐의 鬱熱을 풀어주는 黃芩이 가해진 것으로 平소肺, 胃脘의 呼散之氣가 약하여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太陰人의 병증을 다스린다고 볼 수 있다.

(2) 桔梗生脈散의 變遷過程

桔梗生脈散은 『甲午本』에서 太陰人의 寒厥證(長感病), 癩病 중 體熱腹滿自利, 有腹痛自利病, 有食滯痞滿 腿脚無力病 其病太重證也, 有腹痛下利舌卷不語中風病 其病重險證也 등에 사용되었다.

이는 『辛丑本』으로 넘어가면서 寒厥證과 癩病의 일부는 寒多熱少湯이, 癩病 중 일부와 腹痛自利, 食滯痞滿 腿脚無力은 太陰調胃湯이 담당하게 된다.

寒多熱少湯과 太陰調胃湯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桔梗生脈散 ⊖ 山藥, 白果, 五味子 ⊕ 薏苡仁, 蘿菥子, 麻黃, 杏仁 ⇒ 寒多熱少湯

桔梗生脈散 ⊖ 山藥, 白果, 黃芩 ⊕ 薏苡仁, 蘿菥子, 麻黃, 石菖蒲 ⇒ 太陰調胃湯

이를 비교 정리하면 아래 Table 2 와 같다.

Table 2. 桔梗生脈散에서 寒多熱少湯과 太陰調胃湯으로 분리되어 변천

桔梗生脈散		寒多熱少湯	太陰調胃湯
		麻黃 1	麻黃 1
		杏仁 1	
黃芩 2		黃芩 1	
麥門冬 3		麥門冬 1	麥門冬 1
桔梗 2		桔梗 1	桔梗 1
五味子 2	⇒		五味子 1
		薏苡仁 3	薏苡仁 3
黃栗 2		乾栗 7개	乾栗 3
		蘿菥子 2	蘿菥子 2
			石菖蒲 1
山藥 2			
白果 3매			

즉, 寒邪를 보다 강력하게 몰아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麻黃湯 개념인 麻黃, 杏仁이 들어간 寒多熱少湯이, 완만하게 胃脘, 肺를 補하면서 邪氣를 몰아낼 때에는 補肺元湯(生脈散) 개념으로 五味子가 들어가고, 폐기가 뒤섞이어 엉클어짐을 고르게 조화시켜(錯綜肺氣 參伍勻調) 痞滿의 증상을 치료하는 石菖蒲가 들어간 太陰調胃湯이 다스리게 된다.

또한 두 처방 모두 山藥과 白果가 빠져있는데 이는 肺의 呼散之氣가 약해져 있지만 아직 소화기능이 유지가 되고있어 山藥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咳嗽가 심하지 않아 止咳平喘시키는 白果가 빠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Figure 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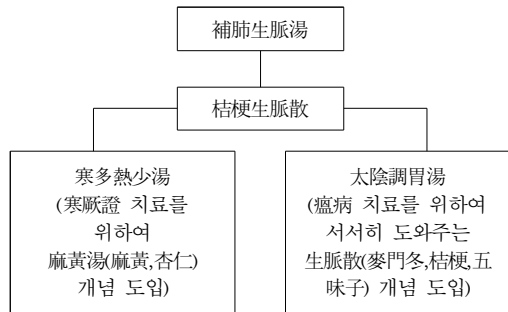


Figure 1. 太陰調胃湯의 基源 및 變遷過程

4. 太陰調胃湯의 구성원리

太陰調胃湯은 薏苡仁 乾栗 各3錢 蘿菥子 2錢 五味子 麥門冬 石菖蒲 桔梗 麻黃 各1錢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원 처방 및 변천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 ① 麥門冬, 桔梗, 五味子(生脈散)로 潤肺燥하여 쇠약한 呼散之氣의 근원을 보충.
- ② 開肺之胃氣而消食進食하는 薏苡仁, 乾栗(山藥和胃煎의 胃氣不和 飲食無味)으로 胃氣를 調和.
- ③ 破氣除痰消食하는 蘿菥子로 폐, 위안의 호산지기 부족으로 생성된 痰을 제거하여 呼散之氣를 上升.

- ④ 胃脘의 上升之氣가 不足하게 되어 肺氣의 불안정으로 뒤섞여 영클어짐을 고르게 조화시켜(錯綜肺氣 參伍勻調)痞滿의 증상을 치료하는 石菖蒲.
- ⑤ 가볍게 表寒邪를 발산하면서 폐의 呼散之氣를 도와 利水消腫하는 麻黃(한다열소탕보다는 외감의 증세가 약하므로 麻黃만으로 가볍게 발산)을 추가하여 去邪와 함께 간접적으로 正氣를 살린다.

### Ⅲ. 考 察

東武가 기존의학에 太陰人 病情이 全昧하다고 하였을 정도로 기존 의학 이론으로 太陰人의 病證 藥理와 處方에 대하여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처지이다. 따라서 太陰人의 處方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그렇지만 『草本卷』, 『甲午本』, 『辛丑本』의 東武의 저술시기에 따른 處方 變遷을 연구하면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辛丑本』 太陰人 表病은 크게 뇌추표병경증, 한결증, 온병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처방으로 麻黃發表湯, 寒多熱少湯, 太陰調胃湯을 꼽을 수 있다. 이는 邪氣의 強弱과 肺의 呼散之氣의 정도에 따라 병정이 나누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각각의 處方도 그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뇌추표병경증은 邪氣가 침입하였지만 肺의 呼散之氣가 좋은 편이라 邪氣를 강력하게 發散시키는 약물로 구성된 麻黃發表湯을 사용하였다.

한결증과 온병(위완한증)의 경우는 모두 正弱邪強의 상태이나 한결증은 外感寒邪에 의한 것이며, 온병은 疫氣에 의한 것이다.

이는 東武가 『辛丑本』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에서 “長感病 無疫氣者 待其自愈 則好也 而癩病 疫氣重者 若明知證藥無疑 則不可尋常置之 待其勿藥自愈 恐生奇證”이라 하여 長感病(寒厥證)과 癩病을 달리 보았으며, 특히 癩病을 疫氣로 인한 전염병이라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등무는 『草本卷』에서 「太陰人 藥方」중 寧神陰煎에서 “治風寒緊觸者 麻黃振發之 疫

氣緩感者 此方和解之”라 하였으며, 石菖蒲酒에서 “牛黃治中風 熊膽解疫氣 麝香治痞悶 黃栗治泄瀉”이라하여 熊膽이 疫氣를 치료한다고 하였는데, 「病變 第六統」에서 “太陰人尋常外感日限速者 則麻黃神速 若運氣重證日限遲者 熊膽一二次用之 生脈散徐徐以助之可也 ... 熊膽有輕清之力 麻黃有促迫之力 太陰人運氣病 精神強而氣可支者 麻黃可用 精神弱而氣不足者 熊膽可用”이라 하여 疫氣를 치료하려면 呼散之氣를 서서히 도와주면서 치료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寒厥證을 치료하는 寒多熱少湯에는 邪氣를 좀더 강력하게 발산하여 몰아내는 麻黃湯 개념인 麻黃, 杏仁 등의 약물이 들어갔으며, 癩病을 치료하는 太陰調胃湯에는 肺의 呼散之氣를 서서히 도와주는 補肺元湯의 개념인 五味子が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太陰調胃湯의 基源 및 變遷過程을 알기위하여 『辛丑本』 太陰調胃湯이 사용되는 病證을 중심으로 『甲午本』 處方을 살펴보면 桔梗生脈散이 그 基源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甲午本』 桔梗生脈散의 처방구성과 가장 유사한 처방은 『草本卷』의 補肺生脈湯이라 볼 수 있으며, 補肺生脈湯은 『草本卷』 生脈散에 山藥和胃煎을 합방한 다음 黃栗을 乾栗로 바꾸고 黃芩을 더한 처방이다.

따라서 太陰調胃湯의 基源은 生脈散과 山藥和胃煎을 합방한 『草本卷』 補肺生脈湯이라 볼 수 있으며, 『甲午本』의 桔梗生脈散을 거쳐 外感寒邪를 몰아내는 寒多熱少湯과 肺의 呼散之氣를 도와 疫氣를 서서히 몰아내는 太陰調胃湯으로 變遷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Ⅳ. 結 論

太陰調胃湯의 基源 및 變遷過程을 알기위하여 『草本卷』, 『甲午本』, 『辛丑本』의 處方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太陰調胃湯의 基源에 가장 가까운 처방은 『草本卷』 補肺生脈湯으로 生脈散에 山藥和胃煎을 합방한 것이다.

2. 補肺生脈湯은 『甲午本』에서 桔梗生脈散으로 변천되었으며, 桔梗生脈散은 『辛丑本』에서 寒多熱少湯과 太陰調胃湯으로 變遷되었다.
3. 太陰調胃湯은 肺의 呼散之氣를 도와주면서 서서히 疫氣를 몰아내기 위하여 補肺元湯을 중심으로 胃氣를 도와주는 薏苡仁, 乾栗, 蘿菔子와 氣를 고르게 조화시키는 石菖蒲, 表寒邪를 푸는 麻黃이 조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參考文獻

1. 李濟馬 原著, 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 卷. 集文堂, 서울, 2003.
2. 李濟馬 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 2001.
3. 李濟馬 著.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大星文化社, 서울, 1998.
4. 裴孝相, 朴性植. 太陰人 藥方의 形成過程에 관한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2001;13(2):110-123.
5. 金宗열, 金경요. 太陰人 裏熱病의 病證藥理에 대한 연구. 四象體質醫學會誌. 1998;10(2):111-150.
6. 한경석, 박성식. 太陰人의 處方構成에 관한 研究. 四象體質醫學會誌. 2007;19(2):1-10.